

이 자료는 2017년 9월 21일 夕刊부터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담당부서	회 원 관 리 팀
		연 락 처	☎ 054)741-6601
본 보도자료는 경주상공회의소 인터넷( <a href="http://gyeongjucci.korcham.net">http://gyeongjucci.korcham.net</a> 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			

## 2017년도 경주지역 제조업체 추석 휴무 현황 조사

❖ 전체 응답 업체 중 45.5%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 
9/30(토)~10/9(월)까지 10일간 휴무 실시

❖ 상여금은 전체 응답 업체의 78%가 지급할 계획 .....  
상여금은 작년 평균 상여금 80만원보다 5만원 인상된 85만원

- 경주상공회의소(회장 김은호)는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55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휴무계획을 조사한 결과,
- 올해 추석 휴무기간은 법정공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실시하는 업체가 45.5%로 가장 많았으며, 7일간 실시한다는 업체와 6일간 실시한다는 업체가 각각 14.5%, 9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9.2%, 8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7.3%, 4일간 실시하는 업체와 3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각각 3.6%, 5일간 실시하는 업체가 1.8% 이고, 추석 휴무 평균 일수는 작년(4.7일)보다 3.5일 연장된 8.2일, 상여금은 작년(80만원)보다 5만원 인상된 85만원으로 조사되었다.
- 그리고 연휴기간 동안 업체 사정상 조업으로 인한 부분적인 휴무를 실시하는 응답 업체도 있으나 조사업체 중 73%가 전 직원이 같은 기간에 추석휴무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단위 : 개사)

휴무 일수	10일	9일	8일	7	6일	5일	4일	3일	계
응답 업체 수	25	5	4	8	8	1	2	2	55
비율	45.5%	9.2%	7.3%	14.5%	14.5%	1.8%	3.6%	3.6%	100%

※ 추석 휴무 평균일수 : 8.2일 (토, 일요일 포함)

-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「작년에도 지급했고, 올해도 지급할 계획이다」 라고 응답한 업체가 43개사(78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「작년에도 지급하지 않았고, 올해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」 라고 응답한 업체와 「작년에는 지급했으나, 올해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」 라고 응답한 업체가 각각 6개사(11%)이며,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「기업 실적악화로 지급하지 않는다」 (58%), 「연봉제 실시로 별도 상여금이 없다」 (42%) 순으로 나타났다.
- 또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업체 중 「일정액 지급」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8개사(42%), 「기본급의 100%」 라고 응답한 업체가 12개사(28%), 「기본급의 50%」 라고 응답한 업체가 9개사(21%), 「기본급의 30%」 라고 응답한 업체와 「기타」 라고 응답한 업체가 2개사(4.5%)로 나타났다.
-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경주지역 제조업체의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추석 연휴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되어 경주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<끝>